



지난 2018년 7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3층서 열린 광주지역 국회의원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광주지역 국회의원들. 앞줄 네번째부터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천정배·장병완 대한정치 소속 의원, 이용섭 광주시장, 김동철·박주선·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최경환 대한정치 의원, 김경진 무소속 의원.

야당 현역들 '위기' ...생환 가능할까

[총선 D-100]

8명 중 7명이 야당 소속...여론조사에서는 현역들 '고전'

광주

"2016년 민주당에 회초리...現 문 대통령 지켜야 한다 생각"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광주지역 선거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야당 현역의원들의 생환 여부다. 지난 20대 선거에서 국민의당 돌풍으로 야당 소속 의원이 전체의 90%에 육박하다 보니 현역의원들의 생환 여부는 곧 더불어민주당의 뒷발 탈환과 맞물린다. 광주 현역 국회의원은 8명이다. 여권인 민주당 소속은 송갑석(초선) 광주 서구갑 의원 1명, 나머지는 모두 야권이다. 야권은 바른미래당 소속이 동남을 박주선(4선), 광산갑 김동철(4선), 광산을 권은희(재선) 의원 등 3명, 가칭 대한정치 소속이 동남갑 장병완(3선), 서구를 천정배(6선), 북구를 최경환(초선) 의원 등 3명이다. 무소속은 북구갑 김경진(초선) 의원 1명이다. 경력별로 보면 재선 이상 당선 의원이 5명, 초선 의원이 3명이다.

그동안 광주는 세대 교체, 인물 교체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3선 이상 중진의원들이 다수임에도 광주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중앙정치에서도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비판이 컸다. 최근 진행된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야당 현역 국회의원들이 고전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 같은 민심을 대변한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확인) 전남매일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21대 총선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광주 8개 선거구 중 현역 국회의원 우세를 보이는 곳은 1곳에 불과했다. '내일이 선거일이라면 누구를 지지하겠습니까'라는 질문에 광주에서 유일한 민주당 소속인 송갑석 의원의 지역구인 서구갑을 제외한 7개 선거구는 야당 현역 의원들 모두 열세였다. 정당별로는 민주당 소속 예비후보들이 대부분 앞섰고 동남을 단 대한신당 예비후보인 김성

환 전 광주 동구청장이 민주당 후보를 누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뉴시스 광주전남본부와 무등일보, 광주MBC가 조사해 1일 발표한 국회의원 인물 선호도 조사 결과도 비슷하다. 이 조사에서는 북구갑에서 현역 의원인 무소속 김경진 의원이 1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역구별로 보면 오차범위 접전인 곳은 동남을과 북구갑 정도고 나머지는 현역의원들의 절대 열세로 압축된다. 현재 진행 중인 여론조사는 민주당 예비후보를 모두 포함해 표가 분산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경선을 거쳐 후보를 확정하면 격차는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21대 국회에 재입성할 현역 국회의원은 민주당 소속인 송갑석 의원이 유일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변수는 있다. 제3세력을 통해 해 거대 야당과 경쟁할 수 있는 대안세력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창당을 준비 중인 대한신당이

다. 대한신당이 지난 총선에서 광주 8석 모두 석권한 국민의당처럼 제2의 녹색돌풍을 일으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지만 오차범위 접전지역은 승부처가 될 수 있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전 대표의 정계 복귀도 변수다. 중도 보수를 표방하며 세결집에 나선 경우 정치 판도를 흔들 수 있다. 하지만 광주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뒷발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견고한 만큼 당 후보가 결정되면 민주당으로 쏠릴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광주는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에 회초리를 들며 국민의당에 표를 몰아 '녹색 돌풍'을 일으켰다"며 "지금은 문 대통령과 민주당을 지켜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 만큼 야당의 고전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뉴시스

예비후보 32명 등록...서구을·북구을 6대 1

민주당 17명, 공천 경쟁 '치열'

4월15일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광주에서는 현재까지 8개 선거구에 32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 동구남구갑 3명, 동구남구을 3명, 서구갑 2명, 서구을 6명, 북구갑 4명, 북구을 6명, 광산구갑 4명, 광산구을 4명이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17명, 자유한국당 1명, 정의당 3명, 민중당 2명, 국가혁명배당금당 2명, 무소속 7명으로 집계됐다.

◇4·15 총선 광주지역 예비후보자<이름, 나이, 직업, 당, 경력>

◆광주 동구남구갑
△윤영덕(50·정치인·더불어민주당·전 문재인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이정희(65·변호사·더불어민주당·전 한국전력공사 상임감사위원)
△최영호(55·정당인·더불어민주당·전 광주 남구청장)

◆광주 동구남구을
△김해경(57·남부대 교수·더불어민주당·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이병훈(63·무직·더불어민주당·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김성환(58·정치인·무소속·전 광주 동구청장)

◆광주 서구갑
△하현석(53·자유한국당 광주 서구갑 당협위원장·자유한국당·조선훈대 외협력 외래교수)
△김명진(50·정당인·무소속·전 김대중 정부 청와대 행정관)

◆광주 서구을
△이남재(52·프리랜서 시사평론가·더불어민주당·전 이낙연 전남도지사 정무특별보좌관)
△양향자(53·정당인·더불어민주당·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최희용(45·한길세무회계사무소 대표·더불어민주당·전 참여자치21 공동대표)
△유종천(49·정치인·정의당·정의당 광주시당 서구지역위원장)
△천정배(65·정치인·무소속·제20대 국회의원)
△정광선(41·일용직·무소속·없음)

◆광주 북구갑
△정준호(39·변호사·더불어민주당·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조오섭(51·정당인·더불어민주당·전 문재인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변인)
△이승남(50·정당인·정의당·광주비정규직센터 소장)
△박현두(58·정당인·국가혁명배당금당·국가혁명배당금당 중앙부위원장)

◆광주 북구을
△이형석(58·정당인·더불어민주당·전 노무현대통령 청와대 비서관)
△전진숙(51·정당인·더불어민주당·전 문재인정부 청와대 행정관)
△황순영(54·회사원·정의당·정의당 광주시당 여성위원장)
△윤민호(49·정당인·민중당·민중당 광주시당위원장)
△노남수(50·개인사업자·무소속·제19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김원갑(59·무직·무소속·자기사랑 시민행동 대표)

◆광주 광산구갑
△이용빈(55·의사·더불어민주당·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이석형(61·정당인·더불어민주당·전 함평군수)
△정희성(50·정당인·민중당·민중당 공동대표)
△조만진(58·정당인·국가혁명배당금당·전 서울동부지법 총무과 청원경찰)

◆광주 광산구을
△김성진(57·정당인·더불어민주당·전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민형배(58·정당인·더불어민주당·전 광산구청장)
△박시중(55·정당인·더불어민주당·전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 선임행정관)
△노승일(44·사회운동가·무소속·사단법인 민족통일광주시협의회 부회장)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